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특별호 :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⑩>,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와 입법 추진’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강득구)은 10월 2일(금), 『<정책브리핑 특별호 :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⑩>,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와 입법 추진』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강득구 원장은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은 수년간 부족한 상태가 누적된 상황”으로, “공공부문은 주택공급이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은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추세이고, 최근 거시 경제 여건 호조로 인해 전월세와 매매 시장 모두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아 주거비 상승에 따른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공급측면에서 단기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설명하며, “현 정부는 주택공급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포함하여 최근 주요 주택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미를 밝혔다.
 - 특히 최근 정책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거복지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강조했다.
 - ① 충분한 수준의 공적주택 2030년까지 119만 호 공급
 - ② 국민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한 공적주택 혁신
 - ③ 생애주기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주거문제 해결
 - ④ 보편적 주거복지로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 민주연구원 박동욱 연구위원은 “이번 브리핑은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 중 하나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가 추진한 주요 주택공급·주거안정 관련 주요 입법 및 후속 이행 현황을 알리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고 전체 주택시장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